

민주 기초단체장 공천도 아수라장

무안, 배심원 동원 의혹 경선 연기

나주 유령당원 논란·함평 전과자 단독후보 파문 순천 노관규 시장 체육관 경선 반발 무소속 대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민주당 지방선거 공천이 갈수록 첨가경이다. 경선 일정이 무기한 연기되고 재심 신청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당-재심위-공심위-최고위로 이어지는, 무책임한 공 때내기식 심의가 이어지면서 곳곳에서 논란과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정치적 뒷받침 광주·전남지역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안이한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나주시장 후보 재경선 파문=나주시장 후보 재경선 문제는 다시 원점에서 논의되고 있다. 지난 16일 민주당 재심위가 나주시장 후보 재경선을 결정했으나 최고위에서는 전남도당의 의견을 청취해 최종 의결에 나서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중앙당 당직자가 최고위에서 '나주시장 후

보 재경선을 결정했다'는 잘못된 공문을 전남도당에 보내 파문이 확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시장 재경선 문제는 이르면 19일에는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나주시장 후보 경선이 문제가 된 것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최인기 의원이 9천200여명의 당원 숫자를 잘못 인지, 예비 후보들에게 당원이 7천400여명이라고 말한 것이 발단이 돼 유령당원 주장 등이 제기됐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나주시역 일부 당원들이 화순군 등에 등록되는 등 당원 명부에 문제가 있었고 재경선 실시 공문이 전남도당에 전달됐다는 점에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무안군수 후보 경선 연기=시민공천배심원제가 도입될 예정이었던 무안군수 후보 경선도 무기한 연기됐다. 문제는 100명의 지역 배심원 선정

이 1~2일 걸릴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몇 시간 만에 종료되는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 다른 지역의 경우 전화를 통한 배심원 모집에 참여율이 50% 미만인데 반해 무안을 거의 모든 접촉자가 참여에 동의했다는 것이다.

이는 지역 배심원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후보 측이 조직적으로 대응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샀으며 중앙당은 지역 배심원단 구성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경선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치적 왜곡을 피해 지역 배심원단을 구성할 수 있는 명확한 대책이 없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혁신 공천의 방법으로 동원한 시민공천배심원제가 지역적 현실 등을 대비하지 못해 오히려 민주당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함평군수 단독 후보 논란=전과

논란을 빚고 있는 함평군수 후보 경선도 아직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중앙당 재심위가 조세포탈 전과가 있어 후보 심사에서 탈락한 A씨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자 최고위는 전남도당 공심위에서 후보를 최종 확정해 보고하라고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당은 19일 공심위를 열고 B씨를 단독 후보로 결정, 최고위에 올릴 예정이다. 그러나 B씨 역시 도박 전과가 있는데다 A씨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최고위의 단독 후보 결정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순천시시장 후보 경선 파문=순천시시장 후보 경선도 노관규 현 시장의 후보 등록 포기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전남지역 기초단체장 후보 경선 가운데 유일하게 체육관 경선이 실시된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노 시장 측에서는 지역구 위원장인 서갑원 의원이 정치적 정적인 자신을 제거하기 위해 체육관 경선을 강행했다고 비난하며 무소속 출마에 나설 방침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 광주시·구의원 경선 후보 156명 확정

광역의원 3배수 기초의원 2배수

민주당 광주시 지역의원(광역·기초) 경선 후보자가 모두 확정됐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18일 광주 광역의원 19개 선거구 50명, 기초의원 25개 선거구 106명 등 6·2지방선거 광역 및 기초의원 경선 후보자 총 156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당 공심위는 "각 선거구별로 후보자들에 대한 면접심사를 거쳐 광역의원은 의원정수의 3배수, 기초의원은 2배수를 원칙으로 경선후보자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경선후보자로 확정된 후보자들은 19일 후보 등록을 거쳐 오는 24일과 25일 각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당원선거인단에 의한 경선을 통해 최종 공천자를 결정한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또 공고일로부터 이를 동안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19일 오전 10시 광주시당 재심위원회(위원장 국회의원 조영택)가 논의키로 했다.

다음은 경선후보자 명단(접수 순).
▷동구=▲광역 1선거구 임병춘·김영우·양혜령 ▲광역 2선거구 김영호·손재홍·나광석 ▲기초 가 선거구 홍기철·양재영·박은섭·남순식·배용태·조영조 ▲기초 나 선거구 나윤화·전인수·이선순 ▲기초 다 선거구 조세철·김철기·주형관·박대현

▷서구=▲광역 1선거구 송재선·이춘문·염동익 ▲광역 2선거구 김보현·이재인·안상록 ▲광역 3선거구 박금자·송용욱·김영남 ▲광역 4선거구 김성현·박찬용·이여성 ▲기초 가 선거구 김수영·오향섭·장재성·이세근·이호현 ▲기초 나 선거구 강인택·오광교·박선동·고선라·박신애 ▲기초 다 선거구 김영선·정진

백·이동춘 ▲기초 라 선거구 김영택·황현택·고광만·김옥수·양영애·임인현

▷남구=▲광역 1선거구 이명자·조영표·김병내 ▲광역 2선거구 김만근·유정심·윤병이 ▲광역 3선거구 김재석·나종천·김영광 ▲기초 가 선거구 남광인·오기주·강창용·최민순·강원호·박예홍 ▲기초 나 선거구 이병조·김집기·김환희·김예정 ▲기초 다 선거구 신인용·박희용·조성용·권용일 ▲기초 라 선거구 성시에·조기주·배경석·박춘수·이강욱·심병희

▷북구=▲광역 1선거구 진진기 ▲광역 2선거구 조오섭 ▲광역 3선거구 문상필·김태훈·김진진 ▲광역 4선거구 오주삼·전우근·홍인화 ▲광역 5선거구 조호권·진귀수 ▲광역 6선거구 김병도·이상걸·이은방 ▲기초 가 선거구 이왕섭·반재신·오종태 ▲기초 나 선거구 김금숙·문해숙·심재섭·이홍일·최무승·양희성 ▲기초 다 선거구 마광민·박주봉·최기영 ▲기초 라 선거구 고재을·안상·신수정 ▲기초 마 선거구 배승택·오화탁·정순영·김영봉·이부일 ▲기초 바 선거구 김미남·이창재·오광록·김동찬·형순태·이동국 ▲기초 사 선거구 김웅정·이관식·김용현·김조순 ▲기초 아 선거구 표범식·이병석·박영자

▷광산구=▲광역 1선거구 김승진·오정균·윤봉근 ▲광역 2선거구 나명선·허문수 ▲광역 3선거구 문오권·송경중·김길원 ▲광역 4선거구 김민중·신영용 ▲기초 가 선거구 류선관·박영권 ▲기초 나 선거구 전영남·이재철·차경성·전양복 ▲기초 다 선거구 김명수·조영욱·김성수·이영순 ▲기초 라 선거구 이성범·문재기·이준원·기범석 ▲기초 마 선거구 채종순·김동호·이준형 ▲기초 바 선거구 김명철·조승우·임이엽·류혜지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어긋난 정치 행보로 갈등을 겪고 있는 민주당 광주 북구 국회의원의 강기정(북구 갑·가운데)·김재균(북구 을·오른쪽) 의원이 18일 전남대 체육관에서 열린 북구청장 선출 경선에 참석해 서로 다른 곳을 응시하며 애써 외면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김재균, 강기정에 핏대 세운 까닭은

민주당 광주 북구 국회의원인 강기정(광주 북갑), 김재균(광주 북을) 의원이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어긋난 정치 행보로 갈등을 겪고 있다.

18일 열린 광주 북구의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선정을 위한 상무위원회 경선에서는 강 의원의 측이 밀고 있는 2명의 후보 모두가 선출됐다. 김 의원이 밀는 2명의 후보는 모두 패배한 것.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에서는 원래 갑과 을지역에서 1명씩 후보를 내서 분배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갑지역에서 이를 어겼다고 반발하고 있다. 을지역 상무위원 수가 갑에 비해 12명 부족한 점을 이용, 강 의원이 세 확산을 시도했다고 을지역에서는 보고 있다.

김 의원과 강 의원은 지난 15일 오후 국회에서 '4+4 야권연대'와 관

련, 목소리를 높이며 다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김 의원 외에도 김영진 의원 등은 강 의원이 광주지역 기초단체장 공천 양보지역 선정에 관여했다고 몰아세웠고, 강 의원은 아니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동안 주류 측에서는 '4+4 야권연대'와 관련, 비주류 측 인사들이 지역위원장으로서 있는 지역을 '거의 일방적으로' 양보지역으로 선정하면서 당내 갈등을 부추겨 왔다.

이처럼 두 의원이 갈등을 빚는 것은 강 의원이 정세균 대표의 최측근으로서 주류 측의 세 확산 시도의 중심에 선 반면 김 의원은 비주류의 핵심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 의원은 정 대표 비서실장 출신으로 최재성 의원, 오영식·윤호중 전

의원 등과 함께 정 대표 최측근 4인방으로 분류될 정도로 주류 측의 핵심이다. 강 의원은 이 같은 힘을 바탕으로 광주·전남지역 지방선거 후보 경선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 정치계의 시각이다.

반면, 김 의원은 비주류 모임인 국민모임에 참석해 왔으며 최근에는 비주류 연합체 격인 세신모임에도 참여하며 주류 측의 일방적 경선 방법 선정 등 공천 황포에 맞서왔다.

민주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두 의원 간 감정 싸움이 깊어져 이제는 돌아오기 힘든 상황까지 이르렀다"며 "하지만, 정치에서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아군도 없기 때문에 언제 같은 배에 타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 서구·순천 '야권 연대' 양보 대상 '반발'

민주 최고위 논의...오늘 협상 시한 성사 불투명

'4+4 야권연대' 협상 시한을 하루 앞둔 18일 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를 열어 민주당 협상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나 호남지역 공천 양보안 등에 대한 회의 참석자 간 의견이 갈리면서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지역 기초단체장 후보의 경우 광주 서구와 순천 등 2곳

에서 연대하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는 공천 양보지역의 지역위원장인 조영택·서갑원·문학진·추미애 의원이 각각 참석, 민주당 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쏟아내면서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있다. 지역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광주

서구(을) 지역위원회(위원장 김영진 국회의원)는 이날 오후 소속 당원 200여 명을 참석시킨 가운데 긴급 당원대회를 열고 '4+4 야권연대' 광주 서구 선정을 원천 봉쇄기로 결의했다. 이들은 또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으며, 서구 갑 지역위원회와 연대해 당원 100여 명이 상경 투쟁에 들어갔다.

/박지경·최권일기자 jkpark@